이태원 참사 3주기…4대 종교 추모기도회

10월 25일, 이태원역 1번 출구
조계종 사노위 진상 규명 염원
기억식서 선우 스님 선언문 낭독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10월 25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추모기도회를 봉행하고 있다.

159명이 사망하고 32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4대 종교 단체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도회를 개최했다. 추모기도회에서 동참자들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3년이지만, 그날의 참사가 왜 발생했고 구조는 실패했는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에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는 10월 25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와 함께 '4대 종교 추모기도회'를 개최했다.

희생자 159명을 기억하기 위해 오후 1시 59분에 시작된 이날 추모기도회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회와사회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가 참여했다. '별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로'를 주제로 유족 100여 명을 포함, 500여 명이 함께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평안을 염원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 지몽 스님은 먼저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부처님께 발원했다. 이어 3년 간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 싸워 온 가족들을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 수고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사노위는 하루빨리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고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대성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교무는 "이 땅에 참혹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마음속 깊이 새겨 지켜야 한다"면서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생명의 존엄을 수호하는 바른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서원했다. 유가족들에게는 "큰 상실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 내는 이들이 평화와 상생의 길로 나아갈 지혜와 용기 갖길 바란다"고 위로를 전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 하성용 신부도 "우리가 기억하는 이들이 평화를 누리고 다시는 고통을 겪지 않길" 기도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진실 규명을 위해 연대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종생 목사는 "유가족 손을 굳게 잡고 진실이 드러나고 책임이 규명되고 안전이 이 땅의 가장 큰 가치가 되는 날까지 종교인들은 끝까지 연대로 함께하겠다"면서 "고통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 자리를 생명과 정의의 자리로 바꾸는 희망의 증언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추모기도회 후 유족과 참석자들은 이태원 1번 출구 앞에서부터 서울광장까지 행진했다. 오후 6시 34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시민추모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6시 34분은 2022년 10월 29일 첫 구조 요청신고가 있었던 시각이다.

한편 조계종은 10월 29일 서울 광화문북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기억식에서 사노위원 선우 스님은 종교계 대표로 단상에 올라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10·27법난 아픔 치유 위해 진실 규명돼야"

10월 27일 봉은사 미륵광장에서
10·27법난 제45주년 추념문화제


조계종은 10월 27일 서울 봉은사 미륵광장에서 '10 · 27법난 제45주년 추념문화제' 를 봉행했다.

10·27법난 희생자들을 넋을 기리고 진실 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기원하는 추념문화제가 열렸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0월 27일 서울 봉은사 미륵광장에서 '10·27법난 제45주년 추념문화제'를 개최했다.

10·27법난은 1980년 10월 27일 신군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스님과 불교 관계자를 강제 연행해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전국 사찰을 일제 수색한 사건이다. 조계종은 희생자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역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해마다 기념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올해 추념문화제가 열린 봉은사는 '10·27법난 기념관' 건립이 예정된 곳이라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법회는 조계종 어산종장 덕림 스님을 법주로, 법난으로 숨진 희생자들의 영가를 달래기 위한 위령위식으로 시작됐다. 피해자와 그 가족을 비롯해 동참자 200여 명은 의식을 통해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총무부장 성웅 스님이 대독한 추념사에서 10·27법난의 고통은 과거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역사적 상처이자 교훈임을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2008년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인한 피해자 인정과 의료지원금 지원, 10·27법난 기념관 건립 등 조계종단의 10·27법난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짚고 "종단은 불교 발전의 염원을 모아 10·27법난의 남은 과제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 진성 스님(조계종 사회부장)은 "10·27법난은 스님들의 인권을 유린한 한국 현대사에 유례없는 사건"이라면서 "종단은 국가폭력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10·27법난의 역사적 교훈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피해자들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10·27법난 기념관' 건립불사의 원만성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불사를 통해 법난의 아픔이 치유되고 굴곡진 우리 불교사가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연차 내고 인연 찾아 직지사로"

10월 24~25일, 김천 직지사서 '나는 절로'

'솔로 탈출' 의지로 6커플 탄생
11월 15~16일, 수덕사 40대도


'나는 절로, 직지사' 참가자들이 차담 데이트를 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 함께 연등달고 싶습니다."

10월 24일 오전 7시 20분. 서울 조계사 앞 우정총국 인근에 전국의 청춘남녀가 모였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한 1박 2일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직지사' 참가자들이다. '나는 절로'를 위해 소중한 금요일 연차까지 내고 왔다는 참가자들의 얼굴에 '솔로 탈출' 의지가 강하게 드러났다.

직지사가 있는 김천의 특산물인 '포도', '자두'를 활용한 닉네임을 받은 참가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버스에 올랐다. 2번의 휴게소, 2번의 자리바꿈을 하며 총 3명의 이성과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나누다 보니 어느덧 직지사에 도착했다.

입재식에서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은 장소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1박 2일 동안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청춘남녀를 응원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단순한 인연을 넘어 저출산 문제를 공감하고 지혜를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서로의 매력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뽐내고 랩과 춤, 노래까지. 진심을 담은 간절한 장기자랑에 분위기는 고조됐다.

환복 후 본격적으로 차담 데이트가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10분 동안 상대방과 지역, 대학, 취미 등을 공유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무렵 깜짝 손님도 등장했다. '나는 절로, 봉선사'에서 인연을 맺은 커플이다. 참가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직지사를 찾은 이들은 '나는 절로'의 여러 활동을 통해 내면의 진심을 찾을 것을 조언했다.

저녁 공양 후에는 대망의 레크레이션 시간이 진행됐다. 게임이 진행될수록 참가자들은 점점 거리감을 좁혀 갔다. 레크레이션 전에는 남자가 여자를, 이후에는 여자가 남자를 지목해 데이트를 했다. 공식적인 데이트 일정은 10시 반까지였지만 커플들은 새벽까지 데이트를 이어 갔다.

다음날 아침, 최종 선택만이 남은 상황. 두근거리는 긴장감 속에 24명 중 무려 6커플이 탄생했다. 50%에 달하는 성사율이다.

참가자들은 회향식 후 인근 사명대사공원에서 열린 김천김밥축제 현장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나는 절로'에는 독일인 프리랜서 기자 펠릭스 릴(Felix Lill)씨가 현장 취재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그는 "한국 언론을 통해 '나는 절로' 프로그램을 접하고 사찰에서 소개팅을 하는 것이 흥미로웠다"며 "불교문화는 물론 한국의 결혼 풍토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1월 15~16일 40대 특집으로 진행되는 '나는 절로, 수덕사'에는 1012명이 참가 신청했다.

김천=송정인 수습기자


조계사 아미타불 점안…20년만 개금 불사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주지 담화 스님)가 대웅전 삼존불 조성 20년을 맞아 아미타부처님 개금불사를 원만 회향하고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온누리에 퍼지길 기원했다. 조계사는 10월 26일 대웅전에서 '조계사 대웅전 삼존불 개금불사 1차 회향–아미타부처님 점안법회' 를 봉행했다. 조계사는 이번 아미타부처님 개금불사를 시작으로 2026년 약사여래부처님, 2027년 석가모니부처님 개금불사를 이어 갈 계획이다. 김내영 기자

'불교정화' 이끈 서운 대종사 30주기 추모

11월 8일, 전등사서 문집 봉정
'처무규정' 등 첫 공개 세미나
역사문화교육관 준공기원법회



강화 전등사(주지 여암 스님)와 이목당 서운문도회는 11월 8일 전등사에서 서운 대종사〈사진〉 30주기 추모 다례와 문집 봉정, 학술세미나, 사진전 등을 개최한다.

이번에 증보판으로 발간되는 〈서운 대종사 문집〉에는 〈처무규정〉의 등사본 원본과 '봉은사 임야 및 토지 매각에 대한 역사적 증언' 원문, '주간한국' 인터뷰 기사 등이 처음으로 수록된다.

특히 세미나에서는 서운 스님이 직접 만들었으나 그간 이두 스님의 글을 통해 제목만 전해지던 〈처무규정〉의 등사본 원본이 공개될 예정이라 주목된다.

11월 8일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정휴 스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서운 대종사의 큰스님론(김광식 전 동국대 특임교수) △서운 대종사의 총무원장 활동·성격(박부영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 △봉은사 토지의 매각과 이목 서운의 대응(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발제가 진행된다. 서운 스님의 출가에서부터 입적까지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 '차가운 달, 빈 산의 진리'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등사 대조루에서 열린다.

한편, 11월 8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전등사역사문화교육관 준공기원법회가 봉행된다.

여수령 기자

문경명상마을서 '무문관 선칠 수행캠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차례
간화선과 초기불교 통합수행

불교 수행의 근본을 되새기며 '나'라는 경계를 넘어서는 참된 자유를 체험하는 7일간의 침묵 수행이 문경에서 열린다.

한국참선지도자협회(회장 각산 스님)는 10월 28일 서울 전법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문경세계명상마을에서 총 3차례에 걸쳐 '무문관(無門關) 선칠(禪七) 수행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무문관 선칠 수행은 간화선의 정통 수행법과 부처님 당시의 초기불교 안반선 수행을 접목한 통합 명상이다. 전국선원수좌회 장로의원 의정 스님과 한국참선지도자협회장 각산 스님의 지도 아래 수행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묵언과 휴대전화 반납 등의 청규를 지키며 하루 한 끼 공양, 좌선, 수행 점검을 반복하며 깊은 내면의 여정을 이어 간다. 초심자는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명상에, 구참자는 화두 참구와 삼매 수행에 집중하게 된다.

캠프는 △11월 1~7일 △12월 6~12일 △2026년 1월 12~17일, 총 3차례에 걸쳐 문경세계명상마을 내 무문관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운영은 자발적 후원금으로 충당돼 숙식은 무료로 제공되며, 참가자는 접수비 7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참가 인원은 회당 40명.

특히 내년 1월 12일~17일 진행되는 3차 수행은 'MZ 무문관 명상캠프'로, SNS 등 영상에 과다하게 노출된 젊은 세대들이 7일간 집중수행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캠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경시가 후원하고 한국참선지도자협회가 주최하며 한국명상총협회가 주관한다. 자세한 내용은 문경세계명상마을 홈페이지(https://wmv.or.kr/10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덕현 기자

국제포교사 33명 신규 품수

국제포교사회 10월 25일 조계사서
'제30회 국제포교사 품수식' 거행



한국불교 세계화를 이끌고 외국인 포교에 앞장설 33명의 신임 국제포교사가 탄생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조규태)는 서울 조계사 교육관 301호에서 제30기 국제포교사 품수식을 봉행하고 신규 국제포교사 33명에게 국제포교사증을 수여했다.〈사진〉

신규 포교사들은 4월 12일 조계사 입재식을 시작으로 7월 26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된 제30회 국제포교사 양성과정을 성실히 이수해 통과한 이들이다. 과정은 국제포교사로서의 기본 소양을 함양하고 영어 법회 진행 및 템플스테이 영어 안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주 2회, 2시간씩 총 39강이 진행됐으며 이 중 영어 강의 비중은 70%를 차지했다.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을 혼합한 블렌데드러닝(Blended Learling)으로 운영됐고, 한국문화연수원에서 2박 3일간의 템플스테이 과정도 포함됐다.

임은호 기자